

강진완도축협, 기획부동산에 165억 불법 대출 파문

타인 명의 수십억 대출·대출가능액 초과 등 내부 감사 적발 “내부 연루 비리” 주장 속 대출 유착 의혹 수사 촉구 목소리

타인 명의로 수십억원을 대출해주거나 사용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대출을 해주는 등 전남의 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자체 감사에서 총 165억원의 불법대출 정황이 드러났다. 조합의 대형 비리가 드러난 만큼 제식구 감싸기 식 자체 징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진완도축산업협

동조합에서 내부감사 총 165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타인 명의 대출, 사용처 미확인 대출, 대출가능액 초과, 대출심사위원회 미승인, 대출심사 소홀 등이었다. 이 불법대출은 특정인과 2020년 9월 최초 대출 거래를 시작한 이래 2021년 3월까지 완도지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대출된 금액은 모 기획부동산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조합 내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제주도 제2신공항부지 내 진입로 없는 땅지가 담보물건으로 설정돼 있고 실질 차주 A씨가 대표인 회사 임직원 3명 등의 차명 계좌로 12차례에 걸쳐 47억 원이 대출됐다는 점이다. 실제 2020년 9월 같은 회사 소속인 B씨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사용내역도 기재하지 않았지만 15건 67억원의 대출이 승인됐다. 같은 달 실거래가 4억7000만원인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2021년에는 실거래 가격이 7억1460만원에 불과한 담보물건에 대해 10억

원을 초과한 대출이 승인됐다. 2021년 3월에는 실적이 없는 신설 회사 2개 곳에 13억의 대출을 해주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소요자금 산출도 하지 않았다. 불법대출이 이뤄진 14건(51억원)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관리돼 금융감독원에 보고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의 불법대출 사실은 A상임이사과 B조합장이 갈등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대출 이후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A상임이사는 부실대출 심각성을 파악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A상임이사는 “조합장이 기획부동산 대출 관련, 수차례 직원들에게 대출 상환 연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조합장은 지난 14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A상임이사 해임결의안을 안건에 붙였고 54명의 대의원이 찬반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31표의 반대로 해임안은 부결됐다. 한 대의원은 “부실채권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조합장이 오히려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이번 사태는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대출 유착 비리 의혹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반갑다 소나기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서창동에서 바라 본 나주 인근의 하늘에 비구름이 물러들며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박성주 광주경찰청장·모상모 전남경찰청장 임명

광주경찰청장에 박성주(경찰대 5기, 보성)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전남경찰청장에는 모상모(간부후보생 42기, 함평)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이 각각 임명됐다. 정부는 치안정감과 치안감에 대한 전보인사를 지난 14일 단행했다.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인 경찰대학장으로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경찰청 차장으로 이호영 경찰대학장, 서울경찰청장으로는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치안감·경무관 전보 인사도 발표했다.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서, 박정호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에는 원정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오고, 광주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장



박성주 경찰청장 모상모 경찰청장

에는 이관형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이 전보됐다.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에는 나원오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자리를 옮기고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는 조병노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장이 오게됐다. 한편 신임 박 청장과 모 청장은 16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 고1 대입 수능, 2026년 11월 19일 시행...마지막 ‘선택형 수능’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시험영역 등 주요 내용을 15일 발표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이 ‘공동+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되는 등 2022학년도에 도입된 현행 수능 체제가 유지된다.

교육부가 과목별 유휴리 현상을 없애기 위해 2028학년도부터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공동과목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마지막 ‘선택형 수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국어·수학영역에서 공동과목(출제비율 75%)과 선택과목(25%) 시험을 함께 치른다. 국어영역은 ‘독서’, ‘문학’이 공동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시

하게 된다. 수학영역은 ‘수학 I’, ‘수학 II’가 공동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 수학영역 문항 30%는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골라 응시하면 된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 등도 현행 수능과 동일하다. /연합뉴스

전남도, 청사 도감청·몰래카메라 집중 점검

최신 탐지기술 활용한 불법 정보 유출 방지 나서

전남도가 지난 14일 민원인 사생활 보호와 청사 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불법 도감청 탐지 및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대적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지사실, 부지사실 등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곳과 서재필실 등 주요 회의실,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민원실, 안내데스크 등 민원인과 공무원의 주요 동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감청은 승인 없이 타인의 대화를 엿듣는 범죄행위이다. 개인 사생활과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특히 청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민감한 정보가 오갈 가능성이 높아 도감청 방지는 필수다. 점검은 통신보안업체의 전문 도청탐지팀이 투입돼 최신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하게 이뤄졌다. 탐지팀은 무선 주파수(RF) 스캐너, 전자기

장 탐지기, 적외선 카메라 등 다양한 탐지 장비를 사용해 몰래카메라나 도청기와 같은 승인받지 않은 무선 송수신기의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 황병은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자체 운영 중인 상시 탐지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불시 탐지활동을 추진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장균 ‘기준치 4배’...광주 음식점 적발

광주의 한 분식집의 김밥에서 기준치보다 4배 높은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삼계탕과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아이스크림) 6041곳에 대한 집중점검결과 광주와 전남의 분식집에서 수거한 김밥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는 전국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 음식점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총 11곳을 적발했다. 판매하는 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 서구 한 분식집 김밥에서 대장균이 기준치(1g 당 10 이하)의 4배가 높게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 업체 중 전남 장흥지역 음식점 2곳은 시설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전국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1576곳에 대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 한 업체 18곳이 적발됐다. 이중 광주·전남의 업체는 없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